

경남 고성지역 6학년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연구 설계

정영훈⁰, 한병래, 이재인
구만초등학교⁰, 진주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jyh12@chol.com, raehan@cue.ac.kr, jilee@cue.ac.kr

A Research Design of Elementary Students' Internet Addiction at Keongnam Koseong

Young-Hun Jung⁰, Byoung-Rae Han, Jae-Inn lee
Guman-Elementary School⁰,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ept. of Computer Education

요 약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은 생활과 의식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 중 인터넷은 이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터넷 중독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고, 점차 인터넷 이용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초등학생에게 까지 미치게 되었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인터넷 이용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인격형성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최근 인터넷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실태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경남 고성지역 6학년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K-척도)를 이용하여 그 실태를 밝히고자 한다.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터넷의 편리성, 빠른 정보 획득, 지식 및 학습 능력 증진, 능동적인 정보처리 과정 및 학습 동기 촉진, 자신감의 배양 등과 같은 잠재적인 효과로 인하여 학교에서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주요 매체로 인정받고 있다[1]. 그러나, 학교만 오면 습관적으로 조는 아이들은 대개 컴퓨터와 관련 있다. 가정마다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된 개인용 컴퓨터가 있고 주변을 둘러보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PC방이 널려 있다. 그러니 밤새도록 게임을 하느라 체력을 허비한 아이들이 잠을 이겨내기란 어려울 것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설문조사한 결과에 청소년의 경우 초등학생의 고위험&잠재적위험사용자군 비율이 12.2%, 중학생은 14.5%,

고등학생은 15.8%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위험사용자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인터넷 중독 현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들은 게임을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함으로써 청소년 10명 가운데 1~2명은 이미 중독에 따른 자각 증세를 느끼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니 해가 갈수록 수업 시간에 조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인터넷 중독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같이 인터넷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는 상당 수 이루어졌으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인터넷 이용 연령층이 낮아지고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나지만 방과 후 생활지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초등학생이 인터넷에 무

방비로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에,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은 주로 성인 위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게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되며, 더욱이 아동은 인성을 형성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일생에 미칠 수 있다[3].

특히 초등학생들은 청소년들과는 매우 다른 흥미와 특성을 지니기에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실태는 물론 그 관련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4].

따라서 초등학생의 인터넷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알맞은 지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의 우려가 있는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실태를 인터넷 중독 척도를 이용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인터넷 자가 진단 검사(K-척도)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독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중독에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론적 배경에서는 인터넷 중독의 개념을 파악하고, 인터넷 중독의 제반 증상과 인터넷 중독의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인터넷 중독의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각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2.1 인터넷 중독의 개념

인터넷 중독의 개념을 알아보기에 앞서 중독의 개념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중독이란 물질의 신체 생리적 의존이라고 할 수 있는 내성과 금단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하는 용어로, 물질적인 중독만을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동장애에 이르기 까지 폭넓게 정의되고 있다. 정신의학에서 중독이란 대체로 물질 사용에 따른 중독으로 알코올, 코카인, 암페타민과 같은 중독성 물질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리적 의존성, 내성, 금단증상, 일상생활에의 적응기능의 손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반해 물질의 사용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이나 타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수행하려는 충동이나 욕구 또는 유혹을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장애를 충동조절장애라고 한다.

인터넷을 과도하게 이용하여 나타나는 병적증세를 일컫는 용어는 아직 학술적으로 정립되지 않으나, 인터넷 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인터넷 중후군(Internet Syndrome), 웹바홀리즘(Webaholism), PC중독 등으로 일컬어진다.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터넷 중독 장애라는 용어는 1995년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Goldberg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되었다[13]. 인터넷 중독에 대해 학자들마다 의견이 상이하여 동의된 이해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는 못하였으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정의를 따라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은 '강박적 사용과 집착, 내성, 금단, 조절불능, 일상생활의 부적응과 같은 다양한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12].

Young은 인터넷 중독 하위유형을 사이버섹스 중독(Cybersexul), 사이버 관계 중독(Cyber Relationship Addiction), 네트워크 강박증(Net Compulsion), 정보 과몰입(Information Overload), 컴퓨터 중독(Computer Addiction)과 같은 다섯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중 초등학생에 대해 찾아볼 수 있는 중독 유형으로는 온라인 우정이 실제 생활에서의 친구와 가족 관계를 대하는 '사이버 관계 중독'과 강박적인 컴퓨터 게임, 정보검색,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는 '컴퓨터 중독' 유형을 들 수 있다.

2.2 인터넷 중독의 제반 증상

인터넷 중독은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심리적, 신체적 증상이 나타난다. 현재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정의와 진단체계가 확실히 수립되지 않아 학자들마다 다소 의견이 다르지만, 인터넷 중독자들은 알코올이나 도박 중독자들과 비슷하게 강박적 사용과 집착, 내성, 금단, 조절불능, 일상생활의 부적응과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에는 대부분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12].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신체적 증상', '문제행동 유형', '초등학생에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체적 증상

인터넷 중독이 폭식 또는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에서 초래되는 종류의 건강문제를 항상 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마레나 오르작 박사는 컴퓨터 중독에 따른 신체적 증상으로는 안구건조증, 편두통, 목관절과 어깨의 뻣근함, 불규칙한 식사, 부주의한 위생관리, 불면증, 수면방식의 변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늦은 밤까지 인터넷을 탐색한 후에 피로감을 느끼고, 온라인에 접속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이 스트레스로 작용되는 것이다.

2) 심리적 증상

신체적인 증상은 심리적인 증상을 동반하여 나타난다. 심리적인 증상으로는 강박적 성욕과 집착, 내성과 금단, 일상생활의 기능장애, 일탈행동과 현실 구분 장애 등이 나타난다[12].

인터넷을 한동안 이용하지 않으면 우울하거나 초조함, 답답함을 느끼게 되며 다른 이유로 이러한 불쾌한 기분을 갖게 되었을 때도 습관적으로 인터넷을 찾게 되는 등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들은 대개 컴퓨터 이용에 대한 강박적 집착을 보인다. 거의 매일 빠짐없이 인터넷에 접속을 하며, 하루에도 수없이 전자우편을 확인한다. 이와 같이 인터넷을 강박적으로 사용하며 더욱 집착하게 된다.

내성이란 이전과 똑같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몰두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내용도 더욱 자극적인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상에 있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컴퓨터를 끄고 나오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게 되면서 점차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보내게 된다.

금단증상이란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 하듯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으면 허전해 하거나 불안해하는 증상을 의미한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몰두하여 집중력이 떨어지지만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 이와 같은 행동이 사라지게 된다. 컴퓨터를 할 때 방해받으면 과도한 반응을 보이게 되며, 심리적 의존이 생겨나게 된다. 오랫동안 인터넷을 하지 않거나 못하게 되면 불안해지고 과민해지며,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한다.

Young은 지나친 인터넷 의존의 결과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인터넷에 중독된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학교생활 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시험이나 과제를 하는 것에 과도한 부담을 느끼고 공부시간은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비중독자에 비하여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며, 자신의 기분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터넷을 과도하게 이용하거나 인터넷 이

용에 집착하게 되면 마치 인터넷 속의 가상 세계를 실제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가상 공간이 주는 익명성과 자신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현실감의 결여 등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쉽게 일탈행동을 저지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2.3 인터넷 중독의 진단 기준

인터넷 중독은 일반적인 중독과 마찬가지로 의존성, 내성 및 금단증상을 그 요건으로 한다. 인터넷 중독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정신과 의사인 Goldberg는 내성, 금단 증상을 비롯하여 인터넷에 대한 생리적 의존을 포함하는 인터넷 중독 집담(IASG, Internet Addiction Support Group)의 공식 진단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 진단기준은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5].

Young은 병적 도박의 진단기준을 활용하여 인터넷 중독에 대한 별도의 진단기준을 만들었는데, 역시 의존성, 내성 그리고 심리적 및 신체적 금단증상을 그 요건으로 한다. 인터넷 중독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 인터넷 이용 시간은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가족관계, 대인관계 및 직장과 학교생활 등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6].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Young이 제시한 인터넷 중독 검사 측정도구를 변안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2002년 정보통신부에서 개발하고 보급한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검사 척도(K-척도)를 사용하였다[12].

이 검사도구는 한국의 현실 상황을 고려하고 한국의 청소년에 맞게 제작된 것으로, 다양한 학자들이 제시한 인터넷 중독 진단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장애, 현실 구분 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행동, 내성의 7개 하위 진단 척도로 구성되었다.

2.4 인터넷 중독의 영향 요인

Greenfield는 1만 7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른 인터넷 사용자와의 강한 친밀감, 인터넷을 중단하기 힘든 탈억제, 현실과의 경계상실, 인터넷에 몰입하게 됨으로써 겪게 되는 시간 개념의 상실 그리고 통제력의 상실 등이 인터넷에 빠지게 되는 요인이라고 보았다[12].

Suler는 현대 사회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진화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실패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에서의 좌절이 인터넷을 통한 허위적인 자기실현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Young은 심각한 정서적 문제나 낮은 자존감 상태에 있는 사람, 이전에 중독 경험이 있던 사람, 자신의 정체감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인터넷에 잘 빠져든다고 지적했다[6].

이렇듯 인터넷 중독에 관련된 영향 요인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크게 보아 개인 심리적 요인, 가정 환경 요인, 사회 환경 요인, 인터넷 사용 환경 요인, 인터넷 자체 요인으로 볼 수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고성군이 소규모 농어촌 형태의 읍·면지역이지만 주변에 마산, 진주, 통영의 시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관내 초등학교생들은 어떤 인터넷 이용 행태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 연구하여 인터넷 중독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자 한다.

2.5 선행연구의 고찰

인터넷 중독에 대한 국내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윤재희는 인터넷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우울하고 충동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자가 더욱 감각추구적이거나 사회적 불편감을 느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7]

박영순은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과 부모의 통제 및 양육태도를 연구한 결과 인터넷 이용에 관한 부모의 통제가 낮거나, 통제 정도가 일관성이 없이 지나칠 경우에도 오히려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식을 통한 통제와 중요성을 말해준다[8]

김진순은 부모, 교사에게 느끼는 정서적 애정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다고 하였다[9].

황수정은 부모의 평가적, 정보적 지지, 친구의 정서적, 평가적, 물질적 지지와 사회적 적응력 중 대인관계, 적응성, 책임성 등이 비 중독 집단에 비해 중독집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10].

이현주는 개인 심리적 측면에서 위험 요인은 인지적 통제감과 스트레스 인식, 가정환경 측면에서 부모의 인터넷 이용 관련 통제와 부모의 자녀 생활 감독 정도 그리고 가족의 정서적 지지, 학교 환경 측면에서 친구와 교사의 정서적 지지를 유의미한 요인으로 조사하였다[11].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일반적 특성 요인, 부모 및 사회적 관계망 요인, 그리고 인터넷 이용 요인이 아동의 인터넷 중독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모형을 정립하였다.

3. 연구의 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상남도 고성군의 위치한 관내 6학년 초등학교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고자 한다.

3.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인터넷 활용 실태 및 인터넷 중독 실태를 조사 영향 요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사용하고자 한다. 인터넷 사용 실태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6)의 인터넷 사용 실태 설문지에서 발췌 및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영역별 문항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영역별 문항 구성

영역	문항 번호	설문 내용
인터넷 이용 실태	1-2	인터넷 이용 시간
	3	인터넷 이용 기간
	4-5	인터넷 주이용 장소
	6-9	인터넷 주이용 목적
	11-12	부모의 컴퓨터 사용능력 및 직업 유무
	15-22	온라인 게임 이용 현황
	23-28	채팅 현황
	29	성인전용 메뉴 이용 현황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식	30	인터넷상에서 신분 속임 여부
	10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일반적 평가
	13	인터넷 이용에 대한 주변 태도
	14	인터넷 이용 통제에 대한 반응
31-33	인터넷 이용에 대한 자가 진단	

그리고, 인터넷중독 실태는 2002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척도(K-척도)를 활용하고자 한다.

K-척도는 인터넷 중독에 관한 이론적 틀을 먼저 세우고, 이에 기초하여 인터넷 중독의 제반 증상을 포괄하는 문항들 40개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1점에서 4점에 이르는 4점 척도로 평정되며, 요인분석에 의하여 이들 40개 문항은 일상생활장애, 현실구분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행동, 내성의 7개 요인들로 구분된다. 그리고 설문지 구성은 <그림 1>과 같다[12].

번 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전혀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생활이 불규칙해졌다.	①	②	③	④
2	인터넷 사용으로 전갈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 같다.	①	②	③	④
3	인터넷 사용으로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①	②	③	④
4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미안하게 아프다.	①	②	③	④
5	인터넷을 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쳐서 후회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그림 1> K-척도 40문항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에서 획득한 점수의 분포에 근거하여 중독자 집단을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위험사용자군, 일반사용자군으로 분류한다. 총 40문항의 총점과 7개 요인 중 A요인 일상생활장애, D요인 금단, G요인 내성의 각각의 합계를 이용하여 분류한다. 그 분류방법과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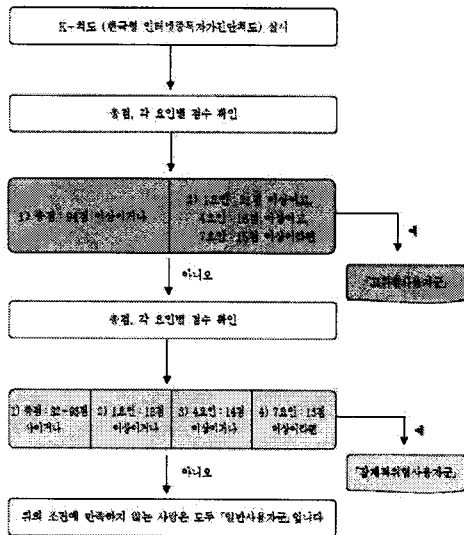


그림2] K-척도 활용 인터넷중독자 집단 분류 절차

3.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be for Social Science)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이며, 분석방법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척도와 백분율을 산출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생의 인터넷 사용 실태와 인터넷 중독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X^2 (Chi-sauare)검증, 그리고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4. 결론

정보화 시대에서 인터넷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지만 컴퓨터 과다 사용으로 인한 인터넷 중독이라는 부정적인 역기능이 발생하였다. 이에 인터넷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 및 경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위해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고성지역 6학년 초등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예상되는 성과를 알아보면 첫째, 고성지역의 인터넷 사용 행태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터넷 중독 실태 와 관련 요인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관련 분석을 통해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참고문헌

- [1] 안석 . "인터넷 중독증에 관한 연구-서울 소재 중학생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2]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2006.
- [3] 김지영, 류현숙. "학령기 아동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아동간호학회지 9(2), pp. 198-205, 2003.
- [4] 김현택 외 17인, "현대 심리학 이해", 서울 학지사, 2003.
- [5] 권준수, "인터넷 중독증", 대한의사협회, 제42권, 8월호, pp. 759-764, 1999.
- [6] 김벌리 S. Young, "인터넷 중독증", 나눔의 집, 2000.
- [7] 윤재희,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및 대인관계연관성:대학생집단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8] 박영순, "인터넷 중독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9] 김진순,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 요인",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10] 황수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지지 지각 및 사회적응력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11] 이현주, "초등학생의 인터넷 사용 실태와 중독요인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12]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02.
- [13] 조준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 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